



# 사장 신년사

불과 나흘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중무식이 병술년 1년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자리였다면, 오늘 시무식은 정해진 한 해를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새해 설계는 그냥 뜬금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지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한 바탕 위에서 새해 설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알차고 현실성있는 계획이 짜여지겠지요. 그런 전체 아래 저는 올해 우리 YTN이 역점을 뒀야 할 과제를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 YTN은 기필코 신사업을 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업 하면 뭘 말하시죠? 강갑출 국장이 신사업추진단장으로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처음 약속보다 매우 늦어져서 YTN 식구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사업추진단 멤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신사업이야말로 YTN의 양 날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노력을 경주하도록 합시다. 둘째로, 콘텐츠 혁신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야말로 YTN의 존재의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콘텐츠 혁신은 우리의 지상의 당면과제입니다. 처음의 열기와 노력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YTN 성장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 광고매출 기반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광고매출 성장은 4년째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광고수입이 안정적 성장 궤도에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불안정한 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매출의 구조적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간 안에 이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네 번째, YTN의 지역 및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YTN을 명실상부 한국 제일의 24시간 생방송 뉴스

채널로 만드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도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개시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계획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DMB 전국화 및 DMB 광고매출 확대입니다. DMB 전국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담당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DMB 광고매출은 지난해보다 7~8배 많아질 것이라 관측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아래서나마 경쟁사들보다,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밖에도 사옥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광고시장 약화에 대비한 수입원 다변화 노력 등 우리가 신년에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분야에서 우리의 노력이 일정한 결실을 보게 되면, 우리 YTN은 어느 정도 안정적 기반 위에서 뉴스 채널의 위상을 과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중무식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뉴스전문 채널인 YTN에게는 어느 다른 매체보다도 더 중요한 해입니다.

제 역할을 잘 하면 별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지만, 만약 약간이라도 잘못을 범하게 되면, 가차 없는 비판과 질타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YTN 구성원들은 너나없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언제나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듭니다. 긴장 속에 희망을 안고 정해진 새해를 활기차게 열어가도록 합시다. 우리YTN의 모든 구성원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아침 사장 표 완 수



## 단 신

### 돌발영상, '올해의 좋은 방송' 선정

방송 보도의 새로운 형식을 정착시킨 YTN 돌발영상이, 한국방송비평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좋은 방송 프로그램상' 을 수상했다. 한국방송비평회는 11월30일 방송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YTN 돌발영상이 생생한 화면으로 뉴스 속의 뉴스를 발굴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기여했다며, 케이블과 위성방송 분야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민주화20주년 특별기획 진실 <그때 그 순간, 1987년 6월의 기록>,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에 선정

민주화 20주년 특별기획 '진실 <그 때 그 순간, 1987년 6월의 기록>'이 방송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 을 수상했다. 지난 8일 방송위원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사진기자의 뷰 파인더를 통해 민주화 역사의 한 시점을 경험한 인물들의 생생한 인터뷰로 감동을 주고 있으며 6월 항쟁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장인 전욱 방송위원은 심사평을 통해 "그때 그 순간..."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며 현대사를 이룬 시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또한 1987년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YTN이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 이선아·강영관 기자, 한국방송기자클럽상 수상

이선아(사회1부)·강영관(영상취재팀) 기자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 17회 한국방송기자클럽 시상식에서 취재보도 부문상을 수상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지난 2월 토의 시험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고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2007년 임금협약 체결

노사는 기본급 6% 인상,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 가족 수당 1만원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 임금협약을 12월 18일자로 체결했다.



### SO 보도제작 책임자 세미나

오지철 한국 케이블TV협회장이 11월 24일 YTN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케이블TV방송 보도제작 최고 책임자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YTN시청자위원회 성금 전달

YTN시청자위원회는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를 방문해 불우이웃돕기성금 8백만원을 전달했다. 김관상 국장이 시청자위원회를 대신해 12월 21일 성금을 전달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해열 사우



## 게시판

### 4/4분기 포상

특종상 금상 김정현 정치부 '공정거래위원회, 업체와 유착 의혹' 보도

특종상 은상 김석순 사회1부 'LG전자 입사지원자 정보대량 유출' 보도

정유신 사회1부 '장민호 씨, 북한서 조국통일상' 수상 보도

특종상 동상 이종국 사회1부, 광영주 영상취재팀 '항생제 과다 주사' 돼지고기 유통 보도

김재현 사회1부, 강영관 영상취재팀 '해양경찰청, 수색 구조기 부실 선정' 보도 / 이지은 사회1부, 이동규 영상취재팀 '길 모르는 내비게이션' 기획 보도 / 김정희 뉴스1팀 '리즈공쿠르' 김선욱 우승 소식 보도

우수프로그램상 정철우 영상기획팀, 원종호 영상편집팀 YTN스페셜 <세계의 명건> 12.29

■ 입사 이민희 인사팀 11.27 / 김태훈 인사팀, 주형욱 마케팅기획팀 12. 4 / 김태형 편성운영팀 12.11 / 박소현 문화과학부 12.13 / 조경진 영상편집팀 12.14

### 퇴사

김해열 중계팀 11.29 / 양해경 문화과학부 11.30 / 김재중 타워운영팀, 이주현 영상편집팀 12.15 / 현용국 YTNDMB 파견 12.18

### 전보

유재복 북경지국장 12. 4 / 이종수 차장대우 뉴욕특파원 준비, 박성호 부장 워싱턴특파원 준비, 최기훈 경제부, 전준형 사회1부, 전가영 스포츠부, 이종국 차장대우·김잔디 국제부, 양준모 영상취재팀, 이승주 영상편집팀, 정애숙 해외연수 12.18 / 임종주 해외연수 12.27 / 김선희 앵커팀 1.1, 박희천 국제부 1.2 / 이광엽 차장대우 경제부, 이승훈 차장대우 정치부 1.11

### 부음

정진웅 차장대우(중계팀) 모친상 11. 26 / 김해열(중계팀) 11.29 / 조성용 영상취재팀장 빙모상 12.12 / 김기면(제주지국) 부친상 12.13

### 결혼

이민희(인사팀) 12. 2 / 이승준(영상취재팀) 모친상 12. 3 / 김윤순(타워운영팀) 12. 3 / 민부기(타워운영팀) 자녀결혼 12. 9 / 박기현(사회1부) 12.16 / 강성호(부산지국) 1. 6 / 최재용(그래픽팀) 1. 13

‘올해의 좋은 방송 프로그램상’ 수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박한빛 지윤정 임장혁 김명숙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쑥스럽습니다...” 내지는,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는, “도와주신 분들의 몫일 뿐, 저는 그저 대신 받을 뿐입니다...”

겉치레로 듣는, 이런 류의 뻔한 수상 소감들이, 이번에 ‘좋은 방송 프로그램상’을 탄 저희 돌발영상팀에게는 새삼 진실어린 말로 느껴 집니다.

주위의 격려와 성원에 늘 못 미친 것 같아 불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외부에서 주는 상까지 받으니 되레 눈치가 보이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돌발영상팀이 받은 상은 방송위원회가 후원하는 방송비평회의 제 1회 ‘올해의 좋은 방송 프로그램상’입니다.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 전체 가운데 하나, 케이블·위성 티비 프로그램 전체 가운데

하나, 이렇게 3개 프로그램에 주는 상입니다.

창립된 지 2년째인 방송비평회가 방송사에 상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전공하는 각 대학의 교수들과 전현직 방송인들 십 여명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다 뒤져서 심사한 뒤, 케이블·위성 TV의 전체 프로그램들 가운데 돌발영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상금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저 개인에게나 제가 사랑하는 YTN에게나 영광은 물론 대단히 고무적인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특별히 한 일이 없이, 도와주신 분들 대신 채찍질을 받아 쑥스럽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요~~~!”

임장혁, 김명숙, 지윤정, 박한빛 돌발영상팀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취재기

# ‘열사의 땅’, ‘물’에 젖다

6년 만의 종합대회

2000년 올림픽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해외 종합대회 취재.

시드니에서는 임종주선배를 따라 사실상 화면 송출 없이 전화 리포트만 날려대는 ‘얌은뱅이’ 신세였다면, 인터넷 전송이라는 신무기로 나름대로 무장을 한 도하 아시안게임은 기대 반 설렘 반이었다. 스포츠부 생활 7년 간 못 가본 지역 중의 하나인 중동을 처음 밟는다는 점도 신선했다. 헐리우드 영화나 서방 언론 보도에서 언제나 뼈뺌하게 그려졌던 아랍세계, 그리고 무슬림들! 히잡 뒤에 가려진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도하, 열사의 사막은 없다!

전세기로 10시간을 날아 도착한 카타르 수도 도하는 ‘열사의 땅’ 보다는 바다를 낀 ‘건설중인 도시’에 가깝다. 근교로 나가면 공원화된 사막이 있긴 하지만, 도심의 아름다운 ‘알 코르니시’ 해변이 보여주는 여유로움과 수많은 고층 건물 공사의 소음이 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다. 시내 쇼핑몰에는 아랍 전통 복장을 한 현지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 등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있고, (술은 판매 금지) 검은 색 옷으로 전신을 가린 여자들은 딸이나 동남아 계통 하녀들을 대동한 채 쇼핑에 열중이다.

재주는 ‘카타르곰’이 넘고, 돈은 호주 장사꾼 몫?

카타르가 국제종합대회 개최 경험이 없어 TV중계스텝은 물론 대회 경기 운영할 때도 실무책임자 대부분은 시드니올림픽을 치른 호주인들을 많이 썼다

개·폐막식도 호주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질 정도. 마치 돈많은 부자가 파티대행업체를 써서 잔치를 벌인 탓에 손님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



서봉국·김학목 기자

영어가 서투른 아시아권 기자들을 무시하며 남의 땅에서 주인 행사를 하는 백인들의 오만함을 느낀 것은 나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유혈낭자’ 인터뷰

비중계권자인 우리 취재팀은 카메라 장비의 경기장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스탠드업과 선수 인터뷰는 주로 선수촌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선수단의 이른바 ‘골든데이’ 때는 금메달이 10개 가량 쏟아졌는데, 시차가 6시간인 만큼 한국 시간 아침 뉴스 방송을 위해 선수 10명을 전화로 미리 불러놓고, 저녁때 한 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선수촌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다 한 적도 있었다. 나야 괜찮았지만 고령(?)인 김학목 선배는 급기야 코피가 터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미안해요 김선배...)

故김형철 선수 사고... 오만한 국제승마연맹

대회 중반 갑작스런 승마 사고 소식에 선수촌 인근 하마드 종합병원으로 달려갔다. 한국 기자들과 승마연

맹 관계자들을 취재해 ‘뉴스창’ 시간에 전화 연결 두 번을 했고, 리포트도 제 때 끝낼 수 있었다.

다음날 열린 조직위 기자회견때 국제승마연맹 관계자는 ‘카타르가 따낸 승마 첫 금메달을 축하한다’는 망발로 상황 설명을 시작했고, “승마경기는 악천후시 계량화된 수치로 경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감독관의 경험과 ‘감’으로 결정한다”고 해 각국 기자들을 어이없게 만들기도 했다.(대회 뒤늦게나마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다)

잊지 못할 ‘쌀림’의 미소

빠듯한 출장비 탓에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취재차량 문제였는데, 도착 둘째 날, 우연히 만난 ‘나라시 택시’ 운전사가 우리 고민을 해결해주었다.(도하는 택시가 적어 변태영업 자가용 많음) 나보다 10살 어리지만, 주름 탓에 동년배로 보이는 카슈미르 출신 ‘쌀림’. 다른 기사들보다 절반의 요금에다, 어느 정도 낮이 익은 뒤는 카메라 트라이포드까지 직접 받아주는 게 우리 회사 배차실 상관이형 생각이 났다.

같이 밥도 먹고, 열흘 이상 취재를 다닌 탓에 정이 들었는지, 마지막 날 내 손에 선물로 쥐어준 카타르산 커피껌 두 박스가 기억에 남는다.

물에 젖은 도하

대회 폐막 뒤 귀국하는 날, 도하 시내에는 온통 비에 젖었다. 중동이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40년 만의 최대 강수량이었다.

영광과 좌절을 함께 경험한 선수들이 흘린 땀도 많았겠지만, 줄지에 가장을 잃어버린 故김형철선수 유족이 가슴으로 삼킨 눈물도 그만큼은 되지 않았을까...

서봉국 스포츠부

# YTN 싸이월드 (http://cyworld.nate.com/ytnjebo)

## 2006년 9월 26일

과천, 의왕 곳곳에서 불이 났다.  
 싸이월드의 YTN 미니홈피에도 불이 났다.  
 섭광이 번쩍이는 현장 사진과 동영상들이 #420024를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앗! 중학생이 교실에서 찍어서 보낸 핸드폰 동영상까지...  
 뉴스팀 PD들도 놀라고 나도 놀랐다. 서비스 시작 한지 불과 20일인데 이 사람들이 #420024를 어떻게 외웠을까. 사명감에 불타는(혹은 도토리에 눈먼) 제보자가 이렇게 많단 말인가?

## 2006년 11월 10일

일산에서 마을버스가 뒤집어졌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버스가 90도 모로 누운 희한한 사고였다.  
 한 시청자가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 #420024로 보냈고 이 사진은 YTN 뉴스 뿐 아니라 싸이월드 메인 페이지에 소개돼 수만 건의 조회수와 수백 건의

댓글을 기록했다.  
 “제보하려고 찍은 사진 아니냐”부터 “사람부터 구해야지 사진 찍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는 반응까지.

### 조회수

어느 컴맹 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오는 ‘조회수’가 대체 누구냐고 물었다지만 사실 조회수엔 우리도 민감하다. 대체로 YTN 주력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많이 안 친한 탓에 웬만해선 두 자리 수인 홈페이지 조회수에 익숙해서 그럴까. 젊은이들이 주로 노는 ‘싸이월드’에서 YTN 미니홈피를 통해 배출된 글과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깜짝! 놀란다.  
 미니홈피에 실렸다가 싸이월드 광장으로 보낸 “YTN 기자들의 NG 모음”(2006.10.13)은 조회수 48,145건에 160개의 댓글이 달렸고 돌발영상 제작후기 “길레도 길레다와야 길레다”(2006.10.29)는 조회수 20,569건에 댓글 108개였다.

### 쌍방향? 짝사랑?

YTN-싸이월드의 #420024가 생각보다 빨리 알려

진 건 YTN의 속보 브랜드와 싸이월드의 장터 기능이 시너지를 낸 덕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쌍방향성’이다. 지상파 방송들도 #420024와 비슷한 핸드폰 제보 시스템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보만 받는 ‘단방향’이다.

그런데 요즘 YTN 미니홈피는 쌍방향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있다. 초기에 많은 YTN 팬들이 성의를 갖고 올려주던 콘텐츠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방명록이나 제보사진,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는 일도 바쁜 현업에 파묻히다보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사람들은 눈치를 빨리 채다. 방문자 수가 많이 줄었고 제보 사진과 동영상도 줄었다.

### 놀러와!

일반적으로 “제보하라”고 하던 시대는 지났다. 시청자들과 같이 ‘놀아줘야’ 시청자들도 우리와 놀아주는 시대다. 친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새해엔 새 마음으로! YTN 사람들부터 미니홈피에 많이 놀러와서 글도 쓰시고 #420024로 사진도 보내시고 재미있는 콘텐츠들도 적극 올려주시기 바란다.

## 제보자 인터뷰

### 일산 버스전복 사고 사진 제보 최영준 (대학생/26살, 일산 거주)

#### 어떻게 사고 상황을 제보하게 됐나?

▶ YTN ‘싸이제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낸 사진이 방송에 나오는 걸 몇 번 봤어요.

#### 사고 당시 상황은?

▶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버스가 서행하기에 내다봤는데 다른 버스가 길에 뒤집혀 있었고, 다친 사람들이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였어요. 사고 직후 같았는데, 구급차도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 사고를 보면서 방송 제보가 떠올랐나?

▶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찍다보니까 ‘제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 제보내용이 방송된 것을 봤나?

▶ 봤다. 기분이 뿌듯했어요. 제보가 방송된 이후로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 YTN 자주 시청하나?

▶ 주로 인터넷으로 YTN으로 많이 보는데, YTN은 실시간 뉴스라서 좋아요. 생방송으로 그때그때 뉴스가 나오는 게 맘에 들어요.

#### 앞으로도 제보를 해 줄 생각이 있나?

▶ 물론이죠. 그런데, 도토리 100개만 주는 거예요? 좀 더 주세요...

### 경주 모텔 화재 동영상 제보 박종화 (회사원/35살, 경주 거주)

#### 자정이 넘은 새벽시간에 발생한 화재를 어떻게 포착했나?

▶ 터미널에 근무하기 때문에 밤샘 근무를 자주 하거든요. 그 날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새벽 1시 반쯤에 바깥이 시끄러워서 내다보니까 바로 옆쪽에 있는 모텔 건물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 찍은 화면을 YTN에 제보할 생각은 어떻게 하셨나?

▶ YTN을 자주 봅니다. 사무실에서는 거의 24시간 YTN을 틀어놓고 있어요. 화면 아래 자막뉴스 있잖아요, 거기에 제보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에다가 찍은 화면을 보내게 된 거예요.

#### 제보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보셨나?

▶ 타이밍도 안 맞고 일이 워낙 바빠서 못 봤어요. 아쉽지만, 방송됐으니 전화온 거 아니에요? 기분은 일단 좋네요. 또 다른 거 있으면 제보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안 맞네요... 사고 날 때 내가 거기 맨날 있을 수가 없잖아요...

#### YTN에 하고 싶은 말은?

▶ YTN에서는 다른 곳에서 안 다루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서 좋아요. 특히 나처럼 밤늦게 불규칙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지상파 뉴스는 놓치기 쉬워요. YTN은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 YTN 싸이월드의 장점은?

### 1. YTN 미니홈피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YTN 미니홈피는 1900만 싸이월드 회원들의 미니홈피와 연결되고 일촌을 맺음으로써 나의 이웃 YTN이라는 느낌으로 더욱 편하게 YTN제보와 자유롭고 편안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미 방명록과 일촌평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작고 소소한 이야기부터 심지어는 안부인사와 격려까지 다양하게 많은 싸이월드 회원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 2. YTN 미니홈피는 365일 언제나 열린 제보와 가장 빠른 보도가 가능합니다.

미니홈피 내에 기사, 사진과 동영상을 통한 제보뿐만 아니라 #420024를 통해서 언제나라도 모바일로 통해서 365일 언제나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된 사항은 미니홈피에서 바로 확인이 되므로 빠르게 전달되는 인터넷의 특성과 YTN의 빠르고 정확한 보도가 합쳐져 누구보다도 빠른 기사화가 가능합니다.

### 3. YTN 미니홈피는 언제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YTN 미니홈피는 제보뿐만 아니라 YTN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뒷이야기와 YTN뉴스 NG 등의 다양한 게시판을 통해서 YTN채널에서는 할 수 없었던 숨겨진 이야기도 미니홈피를 방문한 싸이월드 회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YTN 미니홈피의 장점으로 인하여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친근하게 YTN 미니홈피를 방문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제보 수단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싸이월드 회원들의 참여는 양과 질적인 부분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태하 대리 / SK Communications



YTN 대상 수상기

## 성장 엔진에 멈춤이 없어야...

먼저 저에게 과분한 YTN 대상 수상의 영광을 주신 선·후배 사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저를 포함한 YTN 가족 모두에게 정말 분주했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특히 연초 '2006년 경영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예산제도' 도입, '매출채권관리시스템' 마련, '월결산 제도' 시행, '내부회계관리시스템' 마련 등 하나 하나 열거하기에도 많은 변화가 우리 YTN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채권관리시스템의 경우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많은 반성을 요구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벌고도 회사의 공간에 쌓아두어야 할 양식을 세금으로 빼앗겨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영기획실과 마케팅국이 매출채권관리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매출단계부터 부실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월결산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실적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마감 기안이 있음에도 지연 제출되는 세금계산서로 골치 아팠던 회사로서는 빠른 업무추진과 함께 수지전망 및 발전전략 수립이 가능해 지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이 가능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대상 수상에 대한 기쁨을 접어두고 YTN의 경영 혁신을 위해 다시 터보엔진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YTN이 더욱 건실한 언론사로 거듭나는데 일조하는 YTN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석 기획팀



## 선후배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40개월의 군 생활과 대학원까지 거쳐 2003년 6월 사회 초년생으로는 조금 늦은 31살의 나이로 회사에 입사한지 3년 7개월 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YTN인으로 거듭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색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항상 바로잡아 주시고 배려해 주시던 여러 선배님들 덕분에 중도에 낙오하지 않고 YTN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3월 현재의 기획팀으로 인사 발령을 받자마자, 경영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눈앞에 떨어지는 현안들로 한 해가 정말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많은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때론 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YTN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한 업무 추진력과 조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여러 선후배들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제 자신을 YTN이라는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YTN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1년간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흘리셨던 땀으로 얻으신 '경영 혁신'이라는 성과에 대해 제가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부족한 제가 더욱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선후배님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배우는 자세, 섬기는 자세로서 생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근 기획팀



정해년 돼지해에 만난 새내기

# 황금돼지 기상캐스터 한수정

### 합격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기분은?

고맙습니다.^^ 사실 최종 합격 발표 날 제가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저녁때까지 연락이 없어 낙담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전화가 한 통 와있더라고요. 얼른 그 번호로 전화했는데, 이미 다 퇴근하셨다고. 다른 연락이 없으면 합격전화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반, 포기하는 마음 반으로 아침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궁금해서 잠도 잘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할지, 짐작이 되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 면접 볼 때 합격의 느낌은?

제가 가장 마지막 번호였는데, 큰 압박질문 없이 면접을 보고 왔어요. 사장님이나 다들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웃으면서 답변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기대했거든요. 연락이 안 와서 '아, 그렇게 인자하게 웃어주셨으면서!' 하고 원망도 조금 했어요. 조금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 YTN에 대한 첫인상은?

참 역동적인 곳이구나하는 점이요. 24시간 뉴스 채널이다 보니깐 제가 있는 20층은 항상 방송 중이고, 노상 긴장과 긴박함이 감도는 것 같아요. 기상팀 선배님들도 설 새 없이 출연과 기사 작성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정체가 있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들어 참 좋았어요. 저도 그 구성원이 된다고 생각하니 떨리기로 하고, 설레기도 해요.



### 입사 후에 힘든 점은?

아뇨~ 힘들다고 느낄 새가 있나요. 빨리 멋진 날씨요정이 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죠.

형식적인 대답을 지적하자...

사실, 제가 또 12월에 입사를 하다보니 술자리가 정말 많았어요. 합격통보 받고 인사드리러 온 그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사이에 저녁 회식 자리만 세 차례, 점심시간까지 합치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아침에도 술이 안 깬 채로 일어나는 날이 부지기수, 회사에 와서는 화장실과 벗하여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런 술자리 덕분에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선배님을 알 수 있게 돼서 좋아요.

### 한수정씨가 되고 싶은 기상캐스터는?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저의 인생관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거나,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낙관하고 있지않은 것입니다. 그보다 지금 순간순간에 충실한 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고, 튼튼한 미래를 만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로 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송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방영되지 않는 순간에도 더 노력하는 충실한 기상캐스터가 되겠습니다.

YTN에 입사하게 된 지금이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저의 인생관처럼, 나의 순간으로 시청자들의 순간을 사로잡을 수 있는 YTN의 기상캐스터가 되겠습니다.

### 새해 다짐! 한 마디...

2007년은 6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황금돼지해라요? 제가 또 돼지띠거든요. 어쩐지 비범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쌓아서, YTN의 복덩이가 되겠습니다.

황금돼지 기상캐스터 한수정, 꾸준히 주목해주세요!

# 사진으로 본 2006년



서정호(그래픽팀)

- 1. 1.16 진상욱 보도국장 임명
- 2. 3.24 제13기 정기 주총
- 3. 4.10 공채 10기 입사
- 4. 5.2 SO와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 5. 5.15 새 'YTN 윤리강령' 발효
- 6. 5.31 지방선거 개표방송
- 7. 6.2 8기 노동조합 출범
- 8. 6.2 2006 대한민국 환경박람회 개최
- 9. 7.28 생방송 10만 시간 돌파
- 10. 8.9 상반기 YTN 기업설명회
- 11. 8.16 YTN 뉴스, 야후로 생방송 실시
- 12. 9.4 싸이월드 홈피 개설
- 13. 9.25 제3회 해외리포터 초청연수
- 14. 10.21 2006 사원단합대회
- 15. 10.25 제4기 시청자위원회 구성
- 16. 10.30 가을 편성 개편
- 17. 11.15 20부작 다큐 '진실' 방송
- 18. 11.24 SO 보도제작 최고 책임자 세미나



연수보고서-중국 中國社會科學院

# 중국에서 한반도의 하늘을 보다

## ‘부활’을 꿈꾸는 중국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張宇燕(장위연) 교수. 외교관 출신답게 세련된 매너와 언변이 돋보이는 사람이다. 그의 강의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 한 마디로 인기 교수다. 국제관계에서 국가 규모의 중요성을 설명하던 장 교수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며 예전의 경험을 소개했다.

“전에 한국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은 잘 살지만 중국은 아직 가난하다는 말을 건넸다. 그러자 한국 총리가 그런 말 말라며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중국의 1개 省이 한국 전체와 맞먹을 것이라고 하더라.”

순간 수업을 듣던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통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에서 이를 지켜봐왔던 기분은 참으로 묘했다. ‘아직은 너희가 잘 살지만 머지않아 앞지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흘러넘치는 강의실 창문 밖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은 인문사회과학의 일류 인재 배양의 기지”라고 휘갈겨 쓴 江澤民(장쩌민) 前국가주석의 글이 오성홍기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 ‘부패의 산물’ - 中國廉政史

중국 역사상 최고의 부패사범으로 꼽히며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통하는 인물이 있으니 청나라 건륭제 때의 ‘허선’이 바로 그다. 허선이 죽은 뒤 나라에서 몰수한 재산이 조정에서 18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과 비슷했다고 하니 가히 뇌물수수의 지존이라 할 것이다.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관료 사회의 부패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기야 지난 1993년 장쩌민 前 주석이 ‘부패와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사회과학원은 中國廉政史(중국염정사)란 과목을 새롭게 개설했다. 현대판 ‘허선’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다. ‘청렴한 정치의 역사’라는 강좌명과는 달리 역대 탐관오리뿐만 아니라 현재 부패관리들의 유형과 특징 분석, 대책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에서 기자였다는 이유로 강의 때마다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 상황과 제도적 방지책 등에 대한 설명을 강요(?)당했다. 학기 중간에 부원장이 사전 통고 없이 강의를 참관하고 강론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당과 정부의 주요 기관에서 일할 인재를 배출하는 사회과학원에 이런 강좌까지 개설했을까?’ 하는 연민을 지울 수 없었다.

##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게 약인가? 독인가?

이번 연수에서 내가 선정한 주제는 ‘중국의 동북아 전략’, 특히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속내’ 캐내기가 목표였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는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세계 대국이란 목표를 향해 잔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국에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이 연이어 터지면서 조율자로서의 중국 역할이 크게 부각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일된 한반도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분단된 한반도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북한의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일종의 시대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張蘊崙(장위링)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방식으로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집단적 안보약정을 통해 통일이 이뤄진다면 중국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고는 동북아 안보약정을 만들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미군과 국경선을 맞대고 대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 개방과 관련해서는 북한 스스로 진행해야 하며 외부의 간섭은 긴장을 초래해 중국에도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미 관계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陶文釗(타오원자오) 미국연구소 교수도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길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 21세기 ‘신라방’ - 望京(왕징)

당나라 시기 산둥반도에 신라방이 있었다면 21세기 베이징에는 望京(왕징)이 있다.

北京市 朝陽區 베이징공항 가는 길목에 위치한 왕징에 들어서면 한글로 된 간판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줄잡아 4만에서 6만 명. 한국 식당, 슈퍼마켓, 심지어 자장면을 배달 해주는 중국집까지... 중국어 한 마디를 못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말 그대로 한인 타운이다. 대신 물가는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 하나 주의할 것은 이곳에서 아프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중국 병원은 미덥지가 못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동포들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기에 여념이 없

다. 여름에 귀에 가벼운 염증이 생겨 한국인 병원에 갔다가 계산서를 받아보고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한국에서 몇 천원이면 되는 치료비가 10만원 가까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원무과 직원에게 몇 번 따지다 ‘아픈 게 죄지’ 하며 씩씩하게 돌아선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

## 함께해서 행복했던 1년

지난해 1월 우리 가족이 도착한 베이징은 온통 잿빛이었다. 날씨는 또 왜 그리도 춥던지...

건조한 날씨에 적응 못한 아내와 두 딸은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다. 어느 날 큰 딸 수현이가 콧물을 흘쩍이며 따졌다.

수현 : “아빠! 남들처럼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살기 나쁜 중국에 와서 우리를 고생시켜?”

달래다 지친 나 : “그럼 한국으로 돌아갈까?”

수현 : “아니! 그래도 중국에 있을래. 여기서는 매일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잖아.”

바쁜 아빠와 엄마를 둔 죄(?) 때문에 정에 굶주렸던 아이들.

그랬다. 지난 1년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행복은 그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방에 난방이 잘 안 돼 오돌오돌 떨고 지독한 황사로 집안에 흙먼지가 날려도 네 가족이 모여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 좋았다.

귀국 비행기에 오를 때도 베이징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그 잿빛 세상에 우리 가족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두고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자양분을 일궈 일상으로 돌아왔다.

박희천 보도국

## 연말포상

### 올해의 YTN 대상

최유석 · 시민근 기획팀, 박진언 마케팅기획팀

### 특별상

뉴스팀

### 공로상

국제부, 영상취재팀, 황지영 인사팀, 이영훈 타워운영팀, 김창하 차장 경제부, 김진우 차장대우 사회2부, 이종국 차장대우 국제부, 이재우 기술관리팀, 이건설 차장대우 · 전재성 제작기술팀, 정진웅 차장대우 중계팀, 남궁용 마케팅1팀, 김명섭 마케팅2팀, 정경남 · 박만희 · 최형철 YTN DMB 모범사원상, 김재학 디지털기획팀, 최재일 총무팀, 박종권 대전지국, 하운태 타워운영팀, 이용구 편성운영팀, 이만수 · 심정숙 사회1부, 윤현숙 대구지국, 송세혁 강릉지국, 한민정 문화과학부, 이경재 스포츠부, 장기영 뉴스3팀, 이광연 앵커팀, 최재용 그래픽팀, 김학목 영상취재팀, 염해진 차장대우 영상편집팀, 박정호 영상기획팀, 김세명 기술관리팀, 이경준 송출기술팀, 박치훈 · 김형식 제작기술팀, 주윤영 중계팀, 최광희 · 김성태 차장 · 이형철 YTN DMB

### 감사패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손영수 TCN 대구방송 편성제작국장, 김동수 CMB대전방송 편성보도국장, 조병길 C&M서울미디어원 총괄, 이병영 과장 KT전남망건설센터 고객전송시설팀, 김영철 국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오형돈 팀장 지어소프트 12.28

## DMB 출범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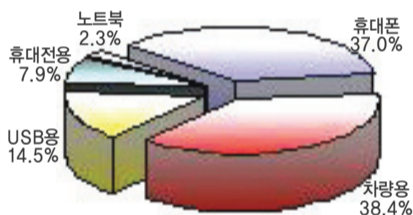
## YTN DMB, 성과와 과제

지난 2005년 12월 1일 YTN DMB가 본방송 전파를 발사한 이후 1년여가 지났다. YTN DMB를 비롯한 수도권 지상파DMB 6개 사업자가 공동 개국행사를 열고 야심차게 출발한 지상파DMB는 지난 1년 단말기 보급에 있어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공을 이뤄냈지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YTN DMB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우들의 이해를 돕고 YTN과 YTN DMB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공통의 토대가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YTN DMB의 지난 1년 여를 돌아보고 올해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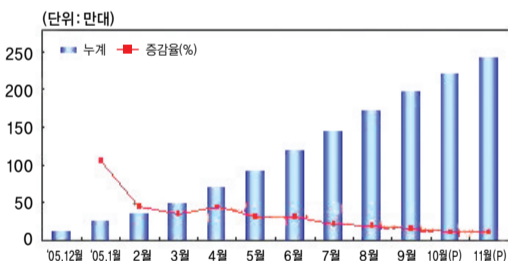
## 2006년... 절반의 성공

지난 2005년 12월 1일 본방송이 시작될 때 지상파DMB는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지상파DMB가 미래 방통 융합 서비스의 총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SKT가 의도적 무관심을 보였고 KTF와 LGT만이 지상파DMB 휴대폰 유통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무료 보편 서비스라는 장점이 힘을 발휘한 것이다.

지상파DMB 제품별 점유율



지상파DMB 누적 보급 대수



유료 서비스란 한계 때문에 95% 이상이 휴대폰 단말기 형태로 보급되는 위성DMB와 달리 지상파DMB 단말기는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덕분에 지난해 4월 보급대수에 있어 위성DMB를 추월한 지상파DMB는 지난해 11월 말 240만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연말까지 260만대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차량용 단말기의 보급이 휴대폰 보급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SKT의 무관심이 지상파DMB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기대 이상의 단말기 보급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YTN DMB의 실적은 기대 밖으로 저조했다. 수도권 지상파DMB 6개사의 KOBACO 광고액은 17억여 원에 지나지 않았고 YTN DMB의 광고액은 3억여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KOBACO는 지상파DMB가 아직 광고 시장에서 광고매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결과라며 최소 500만대 이상이 보급돼야 한다고 말한다. 수

급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파 3사의 경우 지상파DMB 광고시장의 확대는 고정형 방송 광고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고정관념 속에 기존 광고를 지상파DMB에 재전송하면서 본사의 광고단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 또한 생존을 위해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는 저렴한 콘텐츠만을 양산하고 있어 지상파DMB 광고시장 육성에 모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DMB 개국 하루전 이주선 앵커(왼쪽)가 2005년 11월 30일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

2006년 KOBACO 지상파DMB 광고판매 현황  
2007년... 도약을 위한 준비

-2006.12.28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광고판매액 (3월~12월 까지)	비고
YTN DMB	365	
KBS	66	라디오 판매
MBC	367	TV + 라디오
SBS	330	TV + 라디오
한국DMB	286	
U1media	287	
합계	1,701	
KBS(HEART)	214	KBS 자체영업

지난해 62억원의 적자(추정)를 낸 YTN DMB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저 그런 매체로 남을 것인가? 본인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 양이 질을 바꾼다.

변증법 이론 가운데 '양질전환의 법칙'이 있다. 이 이론의 보편타당성에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상파DMB 초기 단계에서 '양이 질을 바꾼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올해 단말기 누적 판매 대수가 최소 700만대에서 최대 1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TF와 LGT의 경우 올해 출시 단말기 70~80%에 지상파DMB를 탑재할 예정이고 SKT 또한 얼마나 적극적일지 알 수 없지만 올 3월 지상파와 위성DMB를 동시에 탑재한 듀얼 폰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지역 지상파DMB가 본방송을 시작하면 지상파DMB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같은 양적 팽창은 지상파DMB 광고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될 것이며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

게 될 것이다.

## 방통 융합 서비스의 새로운 시도

뉴미디어인 지상파DMB의 진정한 힘은 방통 융합 서비스에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가 올해 모습을 보이게 된다. KTF가 올 상반기 상용화할 지상파DMB 포털은 방송과 통신이 서로 힘을 합해 새로운 수익을 찾아내는 첫 시도가 될 것이다. LGT도 올 상반기 EPG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고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인 TPEC 사업이 본격화돼 YTN DMB의 TPEC을 탑재한 네비게이션이 올 1분기 안에 출시된다. 물론 이 같은 서비스가 당장 대박을 터트릴 수는 없다. 그러나 수입을 광고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송과 달리 지상파DMB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갖고 있고 이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다.

## YTN 미디어 그룹으로의 도약

올 한해 YTN DMB가 이뤄낼 성적표는 수치상으로 그리 밝지 않다. 방송 장비 등의 감가상각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6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세라고 생각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비약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간을 좀 더 주고 격려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올해 YTN은 과학 채널과 FM 등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경우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불가피하며, YTN 사우들의 관심도 당장의 수익 보다는 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는데 모아져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YTN이 벌이고 있는 각종 신규 사업은 모두 YTN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다. YTN 가족 모두가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로 이들 사업을 키워갈 때 YTN은 PP에서 벗어나 미디어 그룹으로 우뚝 설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현 정책기획팀장

